존 오웬 『죄 죽이기』(박문재 옮김, CH북스 세계기독교고전 64)

14장 죄를 죽이기 위한 직접적인 지침들

『죄 죽이기』 제14장, 인쇄 192~210쪽

🧭 흐름 한눈에

오웬은 먼저 앞 장들의 지침은 마음을 준비시키는 예비 작업이었다고 정리합니다. 본격적인 지침은 둘뿐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 방식으로 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를 묵상하고, 그분에게서 오는 건져주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웬은 이 기대의 근거로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긍휼과 신실하심을 들고, 이 기대가 가져오는 두 가지 이점도 설명합니다. 이어서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으라고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여섯 가지로 보여 줍니다.

📜 절별 정리

📜 1. 예비 작업에서 본격 작업으로

오웬은 지금까지 다룬 것이 죄를 죽이는 일 자체가 아니었다고 밝힙니다. 그것은 그 일을 위해 마음을 준비시키는 예비 단계였습니다. 마음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죄 죽이기는 아예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길게 다룬 것입니다. 준비가 된 뒤 실제로 할 일을 알려 주는 지침은 많지 않습니다. 오웬은 그 첫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활동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 병든 영혼을 고치는 유일한 약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정욕이 발 앞에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3. 첫째 지침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쓰는 것
4. 그리스도의 피가 유일한 치료약이다

>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 인해 병든 영혼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치료약이다.”

📜 2. 첫째 방법: 그리스도의 충만을 믿음으로 묵상하라

그렇다면 믿음을 어떻게 쓰는가라는 질문에 오웬은 먼저 묵상을 답으로 내놓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죽이기를 위해 마련해 두신 약속의 말씀들로 영혼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내재하는 죄(신자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죄의 성향)는 내 힘으로 아무리 싸워도 결국 지쳐 나가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계속 힘을 공급합니다. 오웬은 탕자를 예로 듭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집에 양식이 풍족하다는 생각만으로도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회개를 주신다면 죄를 죽일 은혜도 주실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죄를 죽이는 힘 없이는 회개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충만이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1. 약속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라
2. 내 힘으로 싸우면 결국 지친다
3. 탕자는 아버지 집의 양식을 떠올렸다
4. 회개를 주시는 분은 죽일 힘도 주신다
5. 충만을 믿는 것이 곧 그 안에 거하는 것

> **빌립보서 4:13**
>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만 이길 수 있다
>
>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요한복음 1:16

그리스도의 충만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골로새서 1:19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5:31

회개를 주시는 분이면 죄 죽일 힘도 주신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5:3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깨끗하게 하는 은혜를 얻는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로마서 11:19-20

접붙임과 거함은 모두 믿음으로 된다

19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 3. 묵상의 실제: 무너진 영혼의 혼잣말

오웬은 이 묵상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한 영혼의 고백으로 보여 줍니다. 그 영혼은 먼저 자기 현실을 정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물처럼 불안정하다. 이 부패함은 내게 너무 버겁다. 맹세와 다짐은 번번이 물거품이 되었고, 이겼다는 확신도 결국 착각이었다.” 그러나 그 영혼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축 처진 손을 다시 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충만한 은혜가 있고 그분의 손에는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승냥이 굴 같은 마음을 풀이 무성한 땅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바울도 시험 아래에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시험이 즉시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 은혜 안에서 영혼을 지켰습니다. 오웬은 이렇게 묵상하면 당장 원수를 이기지 못해도 전쟁터에서 도망치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절망해 불신앙에 빠지거나 거짓 치료책을 붙잡지도 않게 됩니다. 다만 이 묵상은 실천할 때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1. 먼저 내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한다
2. 실패한 맹세와 착각한 확신도 고백한다
3. 그래도 그리스도의 충만을 보고 다시 일어선다
4. 시험이 바로 안 떠나도 은혜는 족하다
5. 목표는 전쟁터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이다

> **마태복음 28:18**
> 그리스도의 손에 모든 권세가 있다
>
>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 **이사야 40:27-31**
>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
> 27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28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35:7

메마른 마음을 샘과 풀밭으로 바꾸신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로마서 8:37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본문 표기는 8:38)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후서 12:9

시험이 남아 있어도 은혜는 족하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 4. 둘째 방법: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건져주심을 기대하라

오웬의 두 번째 방법은 믿음으로 마음을 들어 올려 그리스도의 건져주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건져주심은 하박국의 묵시처럼 정한 때가 있습니다.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옵니다. 괴로운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님이 정하신 때가 실제로는 나에게 가장 좋은 때입니다.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듯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하면 영혼이 만족을 얻고, 그리스도께서 정욕을 죽이신 뒤에는 평안이 옵니다. 오웬은 언제, 어떻게 건지실지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손에서 오는 것만 바라라고 강조합니다.

2. 늦어 보여도 그 때가 가장 좋은 때다
3. 종이 상전의 손을 보듯 그리스도를 보라
4. 오직 그리스도의 손에서 오는 것만 바라라

하박국 2:3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한다

>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시편 123:2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자세

>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사야 7:9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

>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손으로부터 오는 건져주심만을 바라라."

📜 5. 이 기대의 근거 ①: 다른 길이 없다

"그 기대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오웬은 먼저 이 길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답합니다. 그리스도 말고 누구에게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 하나의 죄를 죽이는 데에도 은혜가

보내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건져주심을 기대하는 데 기초하지 않은 방법과 노력과 싸움은 모두 소용이 없습니다. 이 기대를 강화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수단만 쓸모가 있습니다.

1. 이 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2. 죄 하나 죽이는 데도 은혜가 필요하다
3.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받는다
4. 성령도 그리스도에게서만 온다
5. 이 기대가 빠진 노력은 다 헛되다

> **요한복음 15:5**
>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 한다
>
>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 **요한복음 15:2**
> 특히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그렇다
>
>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 **골로새서 1:19**
>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
>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 **에베소서 3:16-17**
> 속사람의 강건함은 믿음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
> 16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 6. 이 기대의 근거 ②: 긍휼에 풍성하신 대제사장

오웬은 기대를 강화하는 첫째 이유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긍휼을 묵상하라고 권합니다. 그분은 어머니가 젖먹이를 위로하듯 고통 중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히브리서는 그분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웬은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다룹니다.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 자체가 커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친히 겪어 보셨기에 어떤 장애가 있어도 반드시 돕고자 하시는 마음이 그 능력에 더해졌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도 같은 근거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러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오웬은 이 한 가지 믿음이 사람이 지어낸 혹독한 고행들보다 정욕을 죽이는 데 더 빠르고 확실하다고 단언합니다. 또 이렇게 그리스도를 기대한 영혼이 정욕에 멸망한 적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 그리스도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위로하신다
2. 시험을 겪으셨기에 기꺼이 도우신다
3. 능력이 커진 게 아니라 돕는 마음이 더해졌다
4.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
5. 이 믿음이 어떤 고행보다 효과적이다

> **이사야 66:13**
> 어머니처럼 위로하시는 하나님
>
>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 **히브리서 2:17-18**
> 시험받으셨기에 시험받는 자를 도우신다
>
> 17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마태복음 11:28

수고하는 자를 부르시는 그리스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55:1-3

그리스도를 기대한 영혼은 멸망하지 않는다

1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요한계시록 3:18

필요한 것을 그리스도에게서 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 7. 이 기대의 근거 ③: 약속하신 분의 신실하심

기대를 강화하는 둘째 이유는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스도는
내재하는 죄에서 건지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건져주심도 이슬과 비가 마른 땅을 적시듯 때가 되면 옵니다. 그래서 오웬은 수많은 약속 가운데 특히 지금 내 상태에 맞는 약속들을 늘 품고 다니라고 권합니다.

1. 그리스도는 건지겠다고 약속하셨다
2. 그 약속은 해와 달의 궤도처럼 확실하다
3. 아침이 오듯 건져주심도 반드시 온다
4. 내 상태에 맞는 약속을 늘 품고 있으라

> **예레미야 31:36**
> 언약은 하늘의 법도처럼 확실하다
>
>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시편 130:6**
>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기다린다
>
>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 8. 기대가 가져오는 두 가지 이점

오웬은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에 늘 두 가지 이점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첫째, 그 기대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움직여 빨리 돕게 합니다. 친구가 정당한 이유로 간절히 내 도움을 기대하면 도우려는 마음이 가장 뜨거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도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공인된 금언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라 버린 우물이 아니십니다. 둘째, 그 기대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수단들로 부지런히 나아가게 합니다. 도움을 기다리는 거지가 베풀 사람의 집 앞이나 길목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통 규례(기도, 말씀, 성례처럼 그분이 정하신 은혜의 통로)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분명히 합니다. 기도와 묵상 같은 구체적인 규례들은 모두 이 뿌리에서 나오고, 이 뿌리 위에서 죄 죽이기에 유용해집니다.

1. 기대는 그리스도가 서둘러 돕게 한다
2. 하나님은 말라 버린 우물이 아니다
3. 기대는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를 이끈다
4. 거지는 베풀 사람의 길목에 앉는다
5.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근거 있는 기대다

> **시편 9:10**
>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
>
>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 **이사야 45:19**
> 내 얼굴을 헛되이 찾게 하지 않으신다(KJV)
>
>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 9.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으라

오웬은 이 지침에 덧붙이는 구체적인 방법의 첫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듭니다. 죄 죽이기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특별한 목적이었으므로 그분의 죽음에는 반드시 죄 죽이기가 따라옵니다. 그분은 마귀의 일, 곧 첫 시험이 우리 본성에 남긴 결과와 날마다의 유혹이 심어 놓은 것을 멸하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씻기는 것을 그리스도의 피에 돌립니다. 로마서 6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했고, 그래서 죄에 대해 죽었으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성령을 확보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효능이 실제로 우리를 죄에 대해 못 박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표이자 모범으로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1. 죄 죽이기는 십자가의 목적 중 하나다
2.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죽으셨다
3. 우리를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다
4. 세례로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했다
5. '함께 못 박힘'은 원인과 결과의 말이다

> **디도서 2:14**
>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고 깨끗하게 하시려 자신을 주셨다
>
>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 **에베소서 5:25-27**
> 교회를 티 없이 거룩하게 하시려 죽으셨다
>
> 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 거룩하게 하시고 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 **요한일서 1:7**
>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
>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 **히브리서 9:14**
> 피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로마서 6:2-4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어찌 죄 가운데 살랴

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5-6

옛 사람이 못 박혀 죄의 종 노릇이 끝난다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 10. 능력을 기대하고 닮기를 바라며 십자가를 보라

두 번째 구체적인 방법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두 가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를 죽일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그분을 닮으려는 마음입니다. 능력에 대해서는 앞의 지침으로 충분하다고 오웬은 말합니다. 닮는 일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눈앞에 밝히 보이게” 된 사람은 다른 데 꾀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웬은 우리 죄의 짐을 지고 기도하며 피 흘려 죽어 가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1. 능력을 기대하며 십자가를 보라
2. 그분을 닮으려는 마음으로 보라
3. 죽어 가시는 그리스도를 눈앞에 그리라
4. 그 피를 내 부패함에 바르라
5. 이것을 날마다 하라

빌립보서 3:10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골로새서 3:3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졌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베드로전서 1:15-19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자의 거룩함

15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8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3:1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눈앞에 밝히 보이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 피로 속량과 죄 사함을 받았다

[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 11. 성령의 역사 ①: 죄를 제대로 깨닫게 하신다

마지막 지침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웬은 지금까지 우리의 의무로 설명한 죄 죽이기 전체가 모든 부분과 단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정리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죄의 악함과 죄책과 위험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마음은 이 깨달음에 압도되기 전까지 온갖 핑계를 대며 싸우지 않으려 합니다. 오웬은 신자도 부분적으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웬은 성령 없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설교만으로도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죄를 깨닫고 있을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런 설교로 “나는 죄인이다”라는 희미한 인식은 생기지만, 그 인식은 의지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박식한 사람도 성령이 없으면 정욕에서 나온 행동을 죄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령은 정욕의 핑계와 속임수와 회피와 위장을 하나하나 드러내십니다. 오웬은 이 첫 단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후 모든 단계가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1. 죄 죽이기 전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2. 첫 일은 죄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
3. 희미한 깨달음으로는 싸우지 못한다
4. 논리적 설교만으로는 의지가 안 움직인다
5. 성령은 정욕의 핑계와 위장을 벗기신다

요한복음 16:8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신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 12. 성령의 역사 ②~⑤: 충만을 보이고, 기대하게 하고, 십자가로 이끌고, 성화를 이루신다

오웬은 이어서 성령의 일을 짧게 네 가지로 듭니다. 둘째, 성령은 그리스도의 충만을 계시해 오직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마음이 절망해 거짓된 길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셋째, 성령은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의 건져주심만 기대하게 하십니다. 오웬은 이 기대가 죄 죽이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다시 말합니다. 넷째,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죽이는 십자가를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다섯째, 성령은 성화(점점 거룩하게 되어 가는 삶)를 시작하고 완성하십니다. 늘 새 은혜를 공급하고, 성화를 가로막는 원리를 약하게 하십니다. 앞에서 우리의 할 일로 설명한 내용이 사실은 하나하나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1. 성령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함을 보이신다
2. 그래서 절망과 거짓 길을 막아 주신다
3. 오직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신다
4.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하신다
5. 성화를 시작하고 완성하신다

> **고린도후서 12:8-9**
>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충분함
>
> 8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 **고린도후서 1:21**
>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
>
>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로마서 6:3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는 세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2:13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됨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3:16-18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짐

16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 13. 성령의 역사 ⑥: 기도를 붙들어 주신다

마지막으로 오웬은 죄를 죽이려고 드리는 모든 기도가 성령의 지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기도의 생명력과 하나님을 이기는 힘은 성령에게서 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간구의 영”이십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찌른 분을 바라볼 때, 성령은 그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게 하십니다. 바울도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떠나게 해 달라고 세 번 기도했습니다. 오웬은 기도 속에서 성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이 책의 주제가 아니라며 여기서 장을 맺습니다.

1. 죄 죽이기의 기도는 성령의 지원을 받는다
2. 기도의 힘은 성령에게서 온다

스가랴 12:10

찌른 자를 바라보게 하는 간구의 영

>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로마서 8:26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게 하신다

>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2:8

바울은 세 번 주께 간구했다

>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 오해와 반론

📖 용어

죄 죽이기(mortification)

신자 안에 남은 죄의 힘을 성령과 믿음으로 계속 약하게 하고 끊어 내는 일입니다.

내재하는 죄(indwelling sin)

거듭난 뒤에도 신자 안에 남아 계속 죄로 끌어당기는 부패한 성향입니다.

정욕(죄악된 욕망, lust)

성적인 욕망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강한 욕구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모자람 없이 가득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건져주심(구원)
이 장에서는 지금 나를 괴롭히는 정욕의 힘에서 그리스도께서 꺼내 주시는 일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해 중재하시며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꼭 필요한 순간에 주시는 도움입니다.

규례(ordinances)
기도, 말씀, 성례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정하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성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가 성령으로 점점 거룩하게 변해 가는 과정입니다.

간구의 영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도록 탄식으로 도우시는 성령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죄를 실제로 죽이는 지침은 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사용하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 그 기대의 근거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 대제사장의 긍휼, 약속하신 분의 신실하심입니다.
- 특히 십자가의 죽음이 죄를 죽이는 원천이므로, 날마다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 죄를 깨닫는 것부터 기도까지, 이 모든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 이 장을 쓰는 편

- 죄 죽이기 13편 · 결국 십자가를 보라 · 믿음과 성령으로 죄를 죽이는 법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오웬 『죄 죽이기』(CH북스, 박문재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 전문 텍스트판과 서재 정리본은 pdf.quritan.com 에 있습니다.